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건연쇄분석

은 기 수*

이 연구는 결혼시기에 결혼이전의 생애과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자료는 1983년 전국인구이동조사의 개인 생애사 자료이다. 분석방법은 이산시간 사건사분석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생애과정을 생애사건의 연쇄로 파악하여 생애사건연쇄분석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네가지의 가설로 설정하여 검증하고 있다. 연구결과 결혼이전의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애과정이 얼마나 먼 과거의 생애과정인지, 가까운 생애과정인지에 따라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1. 들어가는 말

인구학의 연구대상인 인구현상은 출생, 사망, 인구이동, 결혼 등과 같이 아주 단순하다. 얼마나 태어나고, 죽고, 이동하고, 결혼하는가 등의 인구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수학이나 통계기법을 사용하기 이전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아주 간단한 산수를 이용하여 인구현상 자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학의 연구대상인 인구현상은 다른 사회현상들과 분리되어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다. 인구현상도 결국은 사회현상이고, 사회의 변화와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인구현상에 왜 변화가 생겼는지를 이해하려면 아주 단순한 인구현상의 분석도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다. 먼저 해당 인구현상이 발생한 시간과 공간을 고려해야 하고, 인구현상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주어진 자료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난 30여년 사이에 인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연구분야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자료의 개발과 방법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종단적 자료(longitudinal data)의 축적과 종단적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양적 방법론의 발전이다.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이라고 불리는 분석방법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대로 종단적 자료를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석방법으로 자리잡았다.¹⁾

종단적 자료와 종단적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종단적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구현상 혹은 사회현상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성(sex)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거주상태, 혼인상태 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현상들이다.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본다면 그것은 그 현상이 한 시점에 어떤 상태(status)에 있는지를 보

1) 미국의 경우, 종단적 자료는 이미 1970년대에도 많이 축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인구학 연구에서 종단적 자료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방법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기 시작했다 (Crimmins 1993: 585).

는 것이 아니라 인구학적 변화의 과정(process)을 보는 것이다. 또 어느 한 인구현상의 발생에 어떤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고자 할 때에도 그 요인이 한 시점에 놓인 상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인의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변화, 즉 변화과정을 보고, 변화과정 자체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횡단적 자료를 분석할 때는 한 시점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정(靜)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종단적 자료와 종단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인구현상을 분석하게 되면 과정의 역동성을 밝힐 수 있는 동(動)적인 연구가 수행된다고 말할 수 있다.

종단적 자료와 종단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이미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방하남 1996; 은기수 1995; 이재열 1996; 장지연 1997). 이 연구는 종단적 자료와 종단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의 초석이 결혼에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미혼에서 초혼을 하는 경우 성인기로 이행했다고 가정한다. 이 때 초혼은 성인기로 이행하는 사건(event)이 되고, 결혼하기 전의 삶은 바로 결혼에 이를 때까지의 생애과정(life course)이라고 말해진다. 이 연구의 관심은 결혼 전의 생애과정이 결혼 시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결혼 전의 생애과정이 결혼시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생애과정을 어떻게 독립변수로 표현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과정을 경제활동상태의 연쇄(sequence)로 표현하고, 이 연쇄가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생애과정연구관점(perspective of life course studies)에 의거한 생애사건 연쇄분석(sequence analysis of life events) 연구라 불리울 수 있다.²⁾

기존의 인구학 연구에서 연쇄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연쇄분석이라는 용어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하게 느껴진다.³⁾ 본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생애과정연구관점에서의 연쇄분석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 분석방법이 우리가 가

2) sequence analysis를 우리말로 적절히 옮기기가 어렵다. 필자는 이전에 '연속유형분석'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병관(1999)은 필자의 '연속유형'을 '연쇄'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김병관 1999:117). 필자는 김병관이 사용한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sequence를 연쇄, sequence analysis를 연쇄분석으로 표현한다.

3)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생애사건연쇄분석의 예는 다음과 같다.

Eun, Ki-Soo. 1997. "The Sequence of Family Formation Events and the Timing of First Birth in Korea" in *Population Process and Dynamics* edited by Doo-Sub Kim and Barbara A. Anderson. Hanyang University Press.

진 문제의식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자료, 변수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1983년 전국인구이동조사 자료이다.⁴⁾ 1983년 인구이동 조사는 개인수준과 가구수준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조사는 개인수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개인의 생애사를 수집하였다. 생애사를 수집한 목적은 인구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는데, 15세부터 조사시점까지 개인들의 인구이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동지역 및 이동형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인구이동이 일어날 때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인구이동이 일어나는지를 밝히기 위해 교육, 경제활동상태, 결혼, 출산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였다.

개인의 생애사는 조사하는 항목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예를 들어 결혼에 관한 정보의 경우 26세에 결혼했다면 26세의 기록에 결혼으로 표시하였다. 교육, 경제활동상태, 결혼, 출산, 인구이동 등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해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오직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연구는 결혼 전의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때문에 1983년의 인구이동조사 자료 가운데 개인의 생애사 자료는 이 연구에 가장 적절한 종단적 자료가 된다. 그러나 결혼 전의 생애과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한 가상적인 생애과정을 생각해보자. 어떤 남자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19세에 졸업하고, 학교 졸업후 취직을 1년 했다가, 군대에 가고, 3년간 복무한 후 제대하고, 제대후 직장에 다시 들어가고, 약 3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 후 2년째에 첫아이를 낳았다고 하자. 이 경우 “재학-졸업-취직-군대-제대-3년의 직장생활-결혼-출산”을 이 사람의 생애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졸업, 제대 등은 교육의 끝과 군대생활의 끝을 알리는 시점에 불과하므로 위의 생애과정을

4) 우리나라에서 교육, 결혼, 취업 등등 생애사건을 모두 모아놓은 생애사자료가 많지 않다. 최근 여성개발원에서 조사한 여성취업력조사는 여성들의 생애사와 취업력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1983년 인구이동조사자료처럼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있어서 15세부터 조사시점까지의 생애사를 모아놓은 자료는 없다. 더욱이 1983년 인구이동조사는 표본수가 8000개가 넘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의 생애사를 모아놓은 가장 대표적인 자료이다.

다시 쓴다면 “교육-직장-군대-직장-결혼-출산”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한 생애과정은 교육, 직장, 군대, 결혼, 출산 등과 같은 주요한 생애사건의 연결로 표시된 생애사건연쇄(sequence of life events)이다. 즉,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과정을 생애사건연쇄로 표현할 수 있다. 생애과정을 생애사건연쇄로 표현할 수 있다면 한 개인의 생애과정의 분석은 바로 생애사건연쇄의 분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애사건연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다. 위의 경우 우리는 단순히 “교육-직장-군대-직장-결혼-출산”으로 생애과정을 표현했다. 이를 영어 알파벳을 이용해 표현한다면 S(교육)-E(직장)-M(군대)-E(직장)-A(결혼)-B(출산)으로 표현할 수 있고, 더 간단히 표현하면 SEMEAB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된 생애사건연쇄를 우리는 압축연쇄(compressed sequence)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생애사건이 차지하고 있는 기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기간이 6년이나, 9년이나 상관없이 모두 단 하나의 생애사건 S로 표현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압축연쇄라고 부를 수 있다.

생애사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애사건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간의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1983년 인구이동조사자료의 경우 생애사건이 일년단위로 관찰되고 있다. 다시 위의 가상적인 생애과정을 생각해보자. 어떤 남자가 19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졸업은 보통 1, 2월에 이루어진다. 만약 개인의 생애사 관찰이 15세부터 시작되었다면 15세에서 18세까지는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15세부터 18세까지의 생애과정을 정확히 표현한다면 15세부터 18세까지의 4년간의 생애과정을 표현해야 하고, 이는 SSSS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 19세, 1년동안의 직장생활이 더해지면, SSSSE가 된다. 직장생활 도중 입대하여 군대에 3년 있으면 SSSSEMMMM이 되고, 제대후 결혼할 때까지 3년간의 직장생활이 있으면 SSSSEMMMMEEE가 된다. 이렇게 표현된 생애사건연쇄는 압축연쇄와는 달리 관찰단위에 충실하게, 해당 관찰단위의 생애사건을 모두 연결한 연쇄이다. 생애사건연쇄는 이와 같이 관찰단위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흔히 압축연쇄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관찰단위에 맞게 연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983년 전국인구이동조사의 생애사 자료를 개인연도자료(person-year data)로 변형시켜야 한다. 원 자료는 생애사건이 일어난 해에만 생애사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원자료를 그대로 이용해서는 관찰단위에 맞

는 연쇄를 만들 수 없다. 즉, 17세, 19세, 23세, 27세 등과 같이 사건이 일어난 해의 생애사건을 연결하면 압축연쇄만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해 또는 연령의 생애사건은 전 해의 생애사건이 연속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15세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경험할 때까지 매 해의 생애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1983년 전국인구이동조사의 개인 생애사 원자료를 개인연도자료로 변형하여 생애사건연쇄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음 <그림 1>은 1983년 전국인구이동 생애사 원자료를 개인연도자료로 변형한 실제의 예이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결혼시기이다. 한 시점 t에서 결혼을 하는지의 여부가 종

<그림 1> 개인연도자료에 따른 생애사건연쇄의 실제 예

	T	T	T	T		L	L	L	L							
	1	1	1	1		A	A	A	A		F	C				
	L	L	L	L	Y	S	S	S	S		I	M				
	A	A	A	A	R	T	T	T	T		N	V	P			
A	S	S	S	S	S	Y	Y	Y	Y		E	E	A	S	S	
G	T	T	T	T	E	R	R	R	R	I	D	D	C	E	E	
E	2	3	4	5	Q	2	3	4	5	D	U	U	T	Q	X	
15					S						10105	2	3	S	S	1
16					SS		SS				10105	2	3	S	S	1
17	SS				SSS		SS	SSS			10105	3	3	S	S	1
18	SS	SSS			SSSS		SS	SSS	SSSS		10105	3	3	S	S	1
19	SS	SSS	SSSS		SSSSS		SS	SSS	SSSS	SSSSS	10105	3	3	S	S	1
20	SS	SSS	SSSS	SSSSS	SSSSSE		SE	SSE	SSSE	SSSSE	10105	3	3	E	SE	1
21	SE	SSE	SSSE	SSSSE	SSSSSEE		EE	SSE	SSSE	SSSSEE	10105	3	3	E	SE	1
22	EE	SEE	SSEE	SSSEE	SSSSSEE		EE	EEE	SEEE	SSEEE	10105	3	3	E	SE	1
23	EE	EEE	SEEE	SSEEE	SSSSEEE	EM	EEM	EEEM	SEEM	10105	3	3	M	SEM	1	
24	EM	EEM	EEEM	SEEM	SSSSSEEM	MM	EEM	EEEM	EEEM	10105	3	3	M	SEM	1	
25	MM	EMM	EEMM	EEEM	SSSSSEEMM	MM	MMM	EMMM	EMMM	10105	3	3	M	SEM	1	
26	MM	MMM	EMMM	EEEM	SSSSSEEMMME	ME	MME	MMME	EMMME	10105	3	3	E	SEME	1	
27	ME	MME	MMME	EMMME	SSSSSEEMMME	EE	MEE	MMEE	MMMEE	10105	3	3	E	SEME	1	
28	EE	MEE	MMEE	MMMEE	SSSSSEEMMMEEE	EE	EEE	MEEE	MMEEE	10105	3	3	E	SEME	1	
29	EE	EEE	MEEE	MMEEE	SSSSSEEMMMEEEE	EE	EEE	BEEE	MEEEE	10105	3	3	E	SEME	1	

자료: 1983 전국인구이동조사 개인 생애사 자료

- 주: 1) 이 그림은 1983년 전국인구이동조사 개인 생애사 자료를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형한 실제 자료의 일부이다.
- 2) VACT: 원자료에 경제활동상태로 기록되어 있는 변수이다. S: 교육, M:군대, E: 취업중, U: 실업, H:여성의 경우 가정주부를 나타낸다.
- 3) YRSEQ: VACT를 이용해서 만든 매해 생애사건연쇄이다.
- 4) CMPSEQ: YRSEQ에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압축연쇄이다.
- 5) ID10105는 남자로 29세에 결혼을 했다. 그래서 29세에 관찰을 중단했다.

속변수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성, 연령, 교육수준, 출생코호트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성과 출생코호트는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값이 일정한 시간독립변수(time-independent variable)이고, 연령, 교육수준은 시간에 따라 값이 변할 수 있는 시간종속변수(time-dependent variable 또는 time-varying variable)이다. 독립변수는 시점 t-1과 t-2에서의 경제활동상태 및 시점 t-1과 t-2에서의 생애사건연쇄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 개인이 15세부터 결혼을 할 때까지 혹은 조사시점까지의 개인 생애사 자료이다. 생애사자료는 본질적으로 횡단적 자료가 아니라 종단적 자료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또한 종단적 자료 중 개인연도자료이다. 종단적 개인연도자료를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종단적 분석방법은 이산시간 사건사분석(discrete-time event history analysis)이다.

본 연구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ln(P(t_i)/(1-P(t_i))) = a_i + b_{ji}X_j + c_{ki}X_k$$

위의 모델에서 P(t_i)는 시점 t에 결혼할 확률이다. 종속변수는 시점 t에 결혼할 확률 대 결혼하지 않을 확률의 비에 로그를 씌운 로그-오즈이다. i 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나타낸다. b_{ji} 는 시간독립변수의 모수추정치값들이며, c_{ki} 는 시간종속변수의 모수추정치값들이다. X_j 는 시간독립변수이며 X_k 는 시간종속변수이다.

3. 연구가설

이 연구는 기존의 인구학 연구에서 제기된 생애사건연쇄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가설을 검토한다. 생애과정연구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생애과정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삶은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결혼이전에 어떤 생애과정을 살았느냐에 따라 결혼시점에 차이가 나고, 언제 결혼했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결혼시기에 결혼이전의 생애과정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설 1: 결혼이전의 생애과정은 결혼시기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등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생애과정은 얼마나 먼 과거일까? 예를 들어 <그림 1>에 제시된 남자는 29세에 결혼을 했다. 생애사자료는 15세부터 관찰이 시작되었으므로 이 남자의 경우 28세까지의 생애과정은 SSSSSEEEEMMMEEEE와 같이 무려 14년에 걸친 생애사건연쇄로 표현된다. 29세에 결혼을 하는데 15세부터 28세까지의 모든 생애과정이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과거에서부터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얼마나 먼 과거까지의 생애과정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먼 과거보다는 가까운 과거의 삶이 현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가설 2: 가까운 과거의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친다.

생애과정연구의 주요 가설 가운데 하나는 정상적인(혹은 정돈된) 생애과정을 겪은 사람보다 비정상적인(혹은 흐트러진) 생애과정을 겪은 사람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서 불이익을 겪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을 겪은 사람은 정상적인 생애과정을 겪은 사람에 비해서 이혼할 확률도 높고, 결혼만족도도 낮으며, 수입도 낮다는 등의 기존연구가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Hogan 1981; McLanahan and Sorenson 1985; Rindfuss 1991).

가설 3: 정상적인 생애과정과 비정상적인 생애과정 사이에는 결혼시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정상적인 생애과정이라고 말하고 어떤 삶을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⁵⁾ 예를 들어 결혼과 첫출산의 순서를 보면 결혼후 첫출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규범적인 생애과정의 순서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미국이나 서유럽의 경우 동거가 결혼과 비슷한 지위를 획득하고 있고, 결혼의 출산의 비율이 높아지며, 결혼이 점차 감소해가면서 결혼-출산의 순서만큼이나 출산-결혼의 순서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학교교육, 일, 군대, 혹은 가정주부 등의 생애사건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생애과정을 단순히 정상적/비정상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있을 것인가? 마치 노인이라고 규정한 집단도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고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듯이, 우리가 정상적/비정상적인 생애과정으로 규정한 삶도 그 내부에서는 동질적이지 않고, 매우 이질적이지 않을까?

가설 4: 정상적/비정상적 생애과정은 내적으로 매우 이질적이다.

5) 이 연구에서 정상적/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의 구분은 은기수(Eun 1994:141-142)의 기존연구를 따랐다. 남자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생애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결혼 혹은 조사시점까지 한번도 중단하지 않고 학교를 다닌 경우 (S) (2)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 간 경우 (SM) (3)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고 제대후 다시 학교를 다닌 경우 (SMS) (4) 학교를 다니다 군대에 가고 제대후 다시 학교를 다닌 후 취업한 경우 (SMSE) (5) 학교를 다녔고, 군대를 갔다온 후 취업한 경우 (SME) (6) 학교를 다닌 후 취업한 경우 (SE) (7) 학교를 다니다 취업했다가 군대에 간 경우 (SEM) (8) 학교를 다닌 후 취업했다가 군대에 갔다 제대한 후 다시 취업한 경우 (SEME) (9) 계속 취업한 경우(E) (10) 취업했다가 군대에 간 경우 (EM) (11) 취업후 군대에 갔다가 취업한 경우 (EME). 여자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생애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계속 학교에 있었던 경우 (S) (2) 학교를 다니다가 마치고 취업한 경우 (SE) (3) 학교를 다니고 취업했다가 가정주부가 된 경우 (SEH) (4) 학교를 다녔고, 가정주부가 된 경우 (SH) (5) 지속적인 취업 (E) (6) 취업후 가정주부가 된 경우 (EH) (7) 지속적인 가정주부 (H).

4. 분석결과

결혼전의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몇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 가설이 과연 맞는지 검토해보자. 다음 <표 1>과 <표 2>는 각각 남자와 여자로 자료를 구분하여 시점 t-1과 t-2의 경제활동상태 및 시점 t-1과 t-2까지의 생애과정을 독립변수로 한 모델의 결과이다.

<표 1>과 <표 2>에는 다섯 개의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모델 1은 통제변수로만 이루어진 기본모델이다. 모델 2는 시점 t-1의 경제활동상태라는 독립변수가 첨가된 모델이다. 모델 3은 시점 t-1과 t-2의 경제활동상태를 별개의 변수로 취급하여 삽입한 모델이다. 모델 4는 경제활동상태대신 모델 1에 시점 t-1까지의 생애사건연쇄를 독립변수로 첨가한 모델이다. 모델 5는 시점 t-1의 경제활동상태 및 시점 t-2까지의 생애사건연쇄를 독립변수로 한 모델이다. 변수들이 더미변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개의 로짓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보다는 모델비교를 통해서 변수의 유의도를 판단하는 것이 더 낫다. <표 3>은 각각 <표 1>과 <표 2>에 나타난 모델들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의 모델비교를 통해 보면 남자의 경우 시점 t-1과 t-2의 경제활동상태나 시점 t-1까지의 생애과정이 모두 결혼시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애과정을 고려한 모델 4나 경제활동상태와 생애과정을 고려한 모델 5는 기본모델보다 더 나은 모델이다. 따라서 시점 t-1과 t-2에서의 경제활동상태를 독립변수로 한 모델도 기본모델보다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 남자의 경우 시점 t-1과 t-2의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할뿐만 아니라 시점 t-1까지의 생애과정도 정상적 혹은 비정상적인 생애과정 사이에 결혼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시점 t-1과 t-2의 경제활동상태는 아주 가까운 과거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시점 t-1까지의 생애과정은 아주 먼 과거도 포함하는 과거 생애과정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자의 경우 상당히 오랜 과거의 생애과정도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와 다르다. 여자의 경우 모델 2와 모델 3이 기본모델보다 더 나은 모델인 것으로 밝혀져, 시점 t-1과 t-2의 경제활동상태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결혼시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경우 가

〈표 1〉 결혼전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로짓분석: 남자

변수	모델 1 로짓계수(S.E.)	모델 2 로짓계수(S.E.)	모델 3 로짓계수(S.E.)	모델 4 로짓계수(S.E.)	모델 5 로짓계수(S.E.)
Y 절편	-2.788(.088)**	-2.604(.089)**	-2.557(.090)**	-2.733(.90)**	-2.577(.91)**
연령					
16-17	-2.248(.194)**	-1.924(.197)**	-1.897(.197)**	-2.276(.194)**	-1.936(.197)**
18-19	-.545(.108)**	-.371(.110)**	-.368(.109)**	-.561(.108)**	-.373(.110)**
20-21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22-23	.513(.091)**	.564(.092)**	.520(.093)**	.516(.091)**	.571(.092)**
24-25	1.171(.086)**	1.194(.088)**	1.093(.090)**	1.178(.086)**	1.205(.088)**
26-27	2.064(.084)**	1.986(.085)**	1.895(.087)**	2.076(.084)**	2.001(.085)**
28-29	2.415(.114)**	2.225(.093)**	2.159(.095)**	2.398(.092)**	2.244(.094)**
30-31	1.892(.215)**	2.238(.115)**	1.767(.062)**	2.442(.114)**	2.263(.116)**
32-33	2.006(.160)**	1.832(.161)**	1.673(.216)**	2.040(.161)**	1.861(.162)**
34-35	1.892(.215)**	1.729(.215)**	1.673(.216)**	1.929(.216)**	1.759(.216)**
출생코호트					
-1939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1940-1949	-.428(.056)**	-.461(.056)**	-.462(.056)**	-.430(.056)**	-.461(.056)**
1950-1959	-.461(.058)**	-.509(.064)**	-.509(.059)**	-.457(.058)**	-.505(.059)**
1960-	-.933(.157)**	-.304(.079)**	-.847(.157)**	-.930(.157)**	-.863(.157)**
교육					
초등	-.018(.064)	-.058(.064)	-.059(.064)	-.051(.065)	-.080(.065)
중등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고등	-.216(.063)**	-.105(.064)**	-.087(.064)	-.219(.063)**	-.108(.064)+
대학	-.572(.074)**	-.865(.157)**	-.258(.080)**	-.588(.074)**	-.316(.079)**
경제활동상태 (시점 t-1)					
고용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학생		-1.086(.121)**	-.834(.150)**		-1.090(.121)**
군인		-.526(.065)**	-.661(.083)**		-.522(.065)**
실업		-.406(.083)**	-.279(.111)*		-.370(.086)**
경제활동상태 (시점 t-2)					
고용			준거범주		
학생			-.380(.130)**		
군인			.216(.077)**		
실업			-.160(.110)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로짓계수(S.E.)	로짓계수(S.E.)	로짓계수(S.E.)	로짓계수(S.E.)	로짓계수(S.E.)
t-1까지의 연쇄					
정상적				준거범주	
비정상적				-.122(.047)*	
t-2까지의 연쇄					
정상적					준거범주
비정상적					-.087(.049)+
-2LogL(자유도)	3389.582 (15)	3541.030 (18)	3564.824 (21)	3396.171 (16)	3544.148 (19)
전체개인-연도	36084.49	36084.49	36084.49	36084.49	36084.49
사건 수	2473.090	2473.090	2473.090	2473.090	2473.090

** p< .01 * p< .05 + p< .1

〈표 2〉 결혼적 생애과정의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로짓분석: 여자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로짓계수(S.E.)	로짓계수(S.E.)	로짓계수(S.E.)	로짓계수(S.E.)	로짓계수(S.E.)
Y 절편	-1.175(.073)**	-1.238(.079)**	-1.134(.080)**	-1.232(.080)**	-1.205(.082)**
연령					
16-17	-1.463(.075)**	-1.223(.077)**	-1.186(.077)**	-1.448(.075)**	-1.236(.077)**
18-19	-.666(.066)**	-.521(.067)**	-.521(.067)**	-.657(.066)**	-.525(.067)**
20-21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22-23	.724(.064)**	.680(.064)**	.606(.065)**	.721(.064)**	.689(.064)**
24-25	1.291(.074)**	1.171(.074)**	1.082(.075)**	1.283(.074)**	1.186(.075)**
26-27	1.364(.104)**	1.207(.104)**	1.084(.105)**	1.354(.104)**	1.225(.105)**
28-29	1.027(.164)**	.882(.162)**	.753(.163)**	1.009(.165)**	.906(.163)**
30-31	.701(.246)**	.637(.244)**	.542(.243)*	.681(.246)**	.661(.245)**
32-33	.286(.393)	.211(.390)	.139(.389)	.268(.393)	.236(.391)
34-35	-.200(.565)	-.309(.560)	-.370(.559)	-.225(.565)	-.273(.561)
출생코호트					
-1939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1940-1949	-.896(.060)**	-.855(.060)**	-.848(.060)**	-.894(.060)**	-.856(.060)**
1950-1959	-.800(.057)**	-.771(.059)**	-.770(.059)**	-.802(.059)**	-.765(.059)**
1960-	-1.231(.096)**	-1.080(.097)**	-1.058(.097)**	-1.226(.096)**	-1.077(.097)**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로짓계수(S.E.)	로짓계수(S.E.)	로짓계수(S.E.)	로짓계수(S.E.)	로짓계수(S.E.)
교육					
초등	.475(.055)**	.379(.055)**	.326(.056)**	.481(.055)**	.376(.055)**
중등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고등	-.629(.063)**	-.392(.066)**	-.324(.068)**	-.612(.064)**	-.410(.067)**
대학	-.830(.100)**	-.270(.108)*	-.101(.111)	-.800(.101)**	-.298(.109)**
경제활동상태 (시점 t-1)					
고용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학생		-1.695(.144)**	-.828(.186)**		-1.702(.144)**
주부		.129(.071)+	.645(.197)**		.110(.126)
실업		.132(.047)**	.596(.099)**		.180(.056)**
경제활동상태 (시점 t-2)					
고용			준거범주		
학생			-1.091(.142)**		
주부			-.579(.202)**		
실업			-.517(.100)**		
t-1까지의 연쇄					
정상적				준거범주	
비정상적				.084(.045)+	
t-2까지의 연쇄					
정상적					준거범주
비정상적					-.088(.057)
-2LogL(자유도)	2623.547 (15)	2855.411 (18)	2926.846 (21)	2626.956 (16)	2857.836 (19)
전체 개인-연도	24062.4	24062.4	24062.4	24062.4	24062.4
사건 수	2870.700	2870.700	2870.700	2870.700	2870.700

** p< .01 * p< .05 + p< .1

〈표 3〉 〈표1〉과 〈표2〉의 모델비교

남자		여자	
모델비교	X2 (자유도)	모델비교	X2 (자유도)
모델 1 대 모델 2	151.448 (3)**	모델 1 대 모델 2	231.864 (3)**
모델 2 대 모델 3	23.794 (3)**	모델 2 대 모델 3	71.435 (3)**
모델 1 대 모델 4	6.589 (1)**	모델 1 대 모델 4	3.409 (1)
모델 2 대 모델 5	154.566 (4)**	모델 2 대 모델 5	2.425 (1)

까운 과거는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생애과정이라는 변수를 고려한 모델 4는 기본모델에 비해서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 시점 $t-1$ 의 경제활동상태에 시점 t 까지의 생애과정을 함께 고려한 모델 5도 시점 $t-1$ 의 경제활동상태만을 고려한 모델에 비해 더 나아진 모델이 아니다. 즉, 가까운 과거만을 고려한 모델은 여자의 결혼시기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모델이지만, 먼 과거를 나타내는 생애과정을 고려하는 모델은 적절한 모델이 되지 못한다. 이는 여자의 경우 결혼시기에 가까운 과거는 영향을 미치지만 먼 과거는 그렇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과 〈표 2〉에 제시된 결과는 결혼직전의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설정한 생애과정의 효과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먼 생애과정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 4〉와 〈표 5〉는 남자와 여자의 경우 과거 2년부터 과거 5년까지의 생애과정이 시점 t 의 결혼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있다.⁶⁾

먼저 남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표 4〉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은 남자의 경우 2년 모델부터 5년 모델까지 비정상적 연쇄의 로짓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이다. 즉, 과거 2년의 생애과정, 과거 3년의 생애과정, 과거 4년의 생애과정, 과거 5년의 생애과정이 모두 남자의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정확히 해석하면 비정상적인 연쇄로 표현되는 생애과정을 경험한 남자는 정상적인 생애과정을 경험한 남자가 결혼할 오즈의 78%(4년 모델의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미 〈표 1〉에서 남자의 경우 가까운 과거뿐만 아니라 먼 과거도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표 4〉의 결과는 비록 시점 $t-1$ 에서 과거 5년간 생애과정까지의 영향밖에 살펴보지 못했지만 남자의 경우 비교적 먼 과거의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는 다르다. 〈표 5〉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여자의 경우 2년 모델과 3년 모델에서 생애사건연쇄의 로짓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4년 모델부터는 생애사건연쇄의 로짓계수가 통계적인 유의도를 잃는다는 점이다. 즉 시점

6) 〈그림 1〉에 과거 2년부터 과거 5년의 생애과정이 나타나있다. 〈표 4〉와 〈표 5〉에 사용된 과거 2년의 생애과정은 〈그림 1〉에서 TILAST2이고 과거 3년의 생애과정은 TILAST3이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의 방식이다.

〈표 4〉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생애과정의 기간: 남자

변 수	2년 모델		3년 모델		4년 모델		5년 모델	
	로짓계수	표준오차	로짓계수	표준오차	로짓계수	표준오차	로짓계수	표준오차
Y절편	-2.7422**	0.0887	-2.7469**	0.0892	-2.7410**	0.0897	-2.7615**	0.0909
연령								
16-17	-2.2649**	0.1942	-2.2038**	0.2600				
18-19	-0.5576**	0.1077	-0.5594**	0.1077	-0.5681**	0.1078	-0.2724	0.1241
20-21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22-23	0.4958**	0.0908	0.5057**	0.0907	0.5099**	0.0907	0.5111**	0.0908
24-25	1.1482**	0.0862	1.1495**	0.0863	1.1517**	0.0863	1.1635**	0.0864
26-27	2.0463**	0.0839	2.0460**	0.0840	2.0416**	0.0841	2.0426**	0.0843
28-29	2.3616**	0.0923	2.3610**	0.0924	2.3582**	0.0924	2.3613**	0.0926
30-31	2.3985**	0.1138	2.3987**	0.1138	2.3992**	0.1139	2.4064**	0.1140
32-33	1.9979**	0.1603	1.9975**	0.1603	1.9981**	0.1603	2.0116**	0.1604
34-35	1.8890**	0.2152	1.8902**	0.2152	1.8931**	0.2152	1.9069**	0.2152
출생연도								
-1939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1940-1949	-0.4346**	0.0559	-0.4240**	0.0561	-0.4074**	0.0563	-0.3788**	0.0571
1950-1959	-0.4630**	0.0582	-0.4550**	0.0584	-0.4352**	0.0587	-0.4038**	0.0596
1960-	-0.9296**	0.0567	-0.8686**	0.1570	-0.8023**	0.1573	-0.7085**	0.1654
교육								
초등	-0.0269	0.0638	-0.0289	0.0643	-0.0471	0.0647	-0.0717	0.0659
중등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고등	-0.2136**	0.0632	-0.1988**	0.0635	-0.1940**	0.0638	-0.1562*	0.0646
대학	-0.5754**	0.0740	-0.5680**	0.0742	-0.5707**	0.0742	-0.5663**	0.0747
연쇄								
정상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비정상적	-0.2061**	0.0716	-0.2206**	0.0648	-0.2533**	0.0602	-0.2525**	0.0569
-2Log L	3398.179		2902.992		2368.130		1959.244	
자유도	16		16		15		15	
전체개인년도	36084.49		32053.39		28187.88		24499.48	

** p< .01 * p< .05 + p< .1

〈표 5〉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생애과정의 기간: 여자

변 수	2년 모델		3년 모델		4년 모델		5년 모델	
	로짓계수	표준오차	로짓계수	표준오차	로짓계수	표준오차	로짓계수	표준오차
Y절편	-1.2669**	0.0772	-1.2915**	0.0794	-1.3416**	0.0825	-1.4574**	0.0877
연령								
16-17	-1.4518**	0.0747	-1.2804**	0.0918				
18-19	-0.6612**	0.0658	-0.6454**	0.0655	-0.6253**	0.0651	-0.5053**	0.0799
20-21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22-23	0.7332**	0.0641	0.7177**	0.0637	0.7008**	0.0633	0.6795**	0.0630
24-25	1.3018**	0.0743	1.2863**	0.0739	1.2663**	0.0736	1.2362**	0.0731
26-27	1.3721**	0.1044	1.3623**	0.1038	1.3488**	0.1032	1.3267**	0.1025
28-29	1.0317**	0.1643	1.0304**	0.1634	1.0268**	0.1623	1.0195**	0.1611
30-31	0.6969**	0.2468	0.7130**	0.2450	0.7276**	0.2431	0.7473**	0.2410
32-33	-0.2900	0.3940	0.3153	0.3917	0.3463	0.3888	0.3860	0.3860
34-35	-0.2125	0.5663	-0.1714	0.5640	-0.1118	0.5609	-0.0342	0.5579
출생연도								
-1939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1940-1949	-0.8889**	0.0599	-0.7918**	0.0620	-0.6554**	0.0651	-0.4551**	0.0709
1950-1959	-0.7859**	0.0587	-0.6881**	0.0608	-0.5619**	0.0640	-0.3490**	0.0698
1960-	-1.2017**	0.0957	-1.0781**	0.0983	-0.9016**	0.1020	-0.7106**	0.1122
교육								
초등	0.4756**	0.0552	0.4234**	0.0563	0.3572**	0.0581	0.3050**	0.0614
중등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고등	-0.6155**	0.0634	-0.6288**	0.0638	-0.6251**	0.0644	-0.5963**	0.0662
대학	-0.7989**	0.1000	-0.8409**	0.1000	-0.8857**	0.1000	-0.9137**	0.1007
연쇄								
정상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비정상적	0.1688**	0.0435	0.1152**	0.0443	0.0689	0.0457	0.0232	0.0483
-2Log L	2638.483		2039.375		1453.904		1010.946	
자유도	16		16		15		15	
전체개인년도	24062.49		20169.86		16576.65		13288.55	

** p < .01 * p < .05 + p < .1

t-1에서 과거 2년과 3년의 생애과정은 시점 t의 결혼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만, 과거 4년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시점 t에서 결혼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 1>에서 여자의 경우 먼 과거의 생애과정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표 5>에 나타난 결과는 여자의 경우 시점 t-1에서의 과거 4년 및 그 이전의 생애과정이 시점 t의 결혼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표 1>의 해석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표 5>에서 여자의 경우 정상적/비정상적 생애과정의 영향도 남자와는 정 반대임이 드러난다. 남자의 경우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을 경험하면 정상적인 생애과정을 경험한 경우보다 시점 t에 결혼할 확률이 낮았는데, 여자의 경우 오히려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을 경험한 경우에 정상적인 생애과정을 경험한 경우보다 결혼할 오즈가 18% (2년 모델) 더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정상적/비정상적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는 사회에서 인식하는 정상적/비정상적 생애과정의 구분에 관계없이 한국 여자들은 정상적/비정상적 생애과정이라는 순서규범보다는 결혼적령기라는 연령규범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은기수 1995). 또는 정상적/비정상적 생애과정으로 구분된 하위의 생애과정들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동질적이지 않고, 매우 이질적인데 정상적/비정상적 생애과정으로 묶이면서 그 영향이 성별로는 반대 방향으로 표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정상적/비정상적 생애과정내의 하위 생애과정들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아야 한다.

다음 <표 6>과 <표 7>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 각각 하위 생애과정들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6>과 <표 7>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표 4>와 <표 5>에서 정상적인 생애과정과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염두에 두면서 해석해야 한다. 먼저 남자의 경우를 보자. <표 4>에서 남자의 경우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을 산 사람은 정상적인 생애과정을 산 사람에 비해 결혼할 오즈가 낮았었다. 2년 모델에서 연쇄번호 1번부터 4번까지가 정상적인 생애과정이고, 5번부터 9번까지는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이다. 준거범주는 시점 t-1에서 과거 2년 동안 계속 취업중인 경우이다. 정상적인 생애과정 내에서 생애과정연쇄의 끝이 군대이거나 학생인 경우는 2년 연속 취업중인 생애과정보다 결혼할 오즈가 낮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정상적인 생애과정이라 할지라도 시점 t-1에 경제활동상태가

학생이거나 군대에 있다면 2년연속 취업중인 사람에 비해 결혼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반면에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이라 할 지라도 시점 $t-1$ 에 취업중이었던 사람은 정상적인 생애과정으로 2년 연속 취업중인 남자에 비해 결혼할 확률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로짓계수는 0.0899이지만 준거범주인 2년 연속 취업 중인 로짓계수와 통계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반면에 비정상적인 생애과정 내의 다른 생애과정들, 즉 맨 마지막 경제활동상태가 군대, 학생, 혹은 실업인 경우는 분명히 2년 연속 취업 중인 사람에 비해 결혼할 가능성이 낮다. 이와 같은 현상은 3년 모델, 4년 모델, 5년 모델로 옮겨가도 똑같다.

여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표 7>은 여자의 경우 정상적/비정상적 생애과정 내의 다양한 생애과정들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동질적인지 아니면 이질적인지를 2년 모델부터 5년 모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표 5>에서 우리는 여자의 생애과정은 아주 가까운 과거의 생애과정이 의미있고, 먼 과거의 생애과정은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은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2년 모델을 보면서 살펴보자. 여기서도 준거범주는 2년 연속 취업중이다. 정상적인 생애과정내에서 준거범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생애과정은 마지막 일년만 취업중인 생애과정과 학생으로 끝나는 생애과정이다. 학생으로 끝나는 생애과정인 경우 취업으로 끝나는 생애과정인 경우보다 결혼할 오즈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건 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애과정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일년만 취업중인 생애과정과 2년 모두 취업중인 생애과정 사이에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다. 2년 연속 취업한 생애과정이 1년만 취업한 생애과정보다 더 결혼할 가능성이 많게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비정상적 생애과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정상적인 생애과정 내에서는 생애과정의 끝이 가정주부이거나 실업의 경우에는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학생으로 끝나거나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이라도 취업중으로 끝나는 경우는 비정상적 생애과정 내의 다른 생애과정과 비교할 때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다. 즉, 결혼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3년, 4년, 5년 모델로 옮겨가도 마찬가지이다. 5년 모델을 보면 여자의 경우에는 취업년수에 따라 결혼할 확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남자의 경우와 비교해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다. 남자의 경우에는 시점 $t-1$ 에서 일년부터 오년까지 취업기간에 상관없이 생애과정의 효과에 차이가 없었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시점 $t-1$ 에서 일년부터 오년까지 취업기간에 따라

〈표 6〉 다양한 연쇄가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로짓분석: 남자

변수	2년 모델 로짓계수(S.E.)	3년 모델 로짓계수(S.E.)	4년 모델 로짓계수(S.E.)	5년 모델 로짓계수(S.E.)
t-1까지의 연쇄				
1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2	-0.0710(.0871)	0.0861(.0876)	0.0503(.0979)	0.1290(.1106)
3	-0.4917(.0672)**	-0.0673(.0896)	0.1066(.0899)	0.0557(.1011)
4	-1.1194(.1258)**	-0.4549(.0702)**	-0.0226(.0923)	0.1436(.0952)
5	0.0899(.1466)	-1.0941(.1336)**	-0.4100(.0736)**	0.0846(.0968)
6	-2.0575(.4906)**	-0.1066(.1682)	-1.0268(.1393)**	-0.3459(.0700)**
7	-0.7067(.3979)+	0.1441(.1441)	0.0124(.1733)	-0.8108(.1485)**
8	-0.3264(.1338)*	-1.2299(.2209)**	-0.1001(.1678)	0.2286(.1714)
9	-0.4626(.1031)**	-0.8780(.3097)**	0.0902(.1425)	0.0591(.1730)
10		-0.3197(.1361)*	-1.0354(.1616)**	-0.0679(.1622)
11		-0.1727(.1762)	-1.1230(.2992)**	0.0086(.1362)
12		-0.5858(.1260)**	-0.2868(.1378)*	-0.9332(.1418)**
13			-0.1710(.1787)	-1.1041(.2850)*
* 14			-0.1823(.2364)	-0.2350(.1398)+
15			-0.7343(.1501)**	-0.1511(.1899)
16				-0.1237(.2382)
17				-0.5293(.3571)
18				-0.7308(.1678)+
-2 Log L (자유도)	3562.181 (23)	3063.064 (26)	2523.336 (28)	2091.510 (31)
전체개인-연도 사건수	3608.49 2473.090	32053.39 2458.460	28187.88 2442.430	24499.48 2389.320

** p < .01 * p < .05 + p < .1

주: 1) 모델별 생애사건연쇄는 다음과 같다.

- 2년 모델 : 1. EE 2. oE 3. oM 4. oS 5. dE 6. dM 7. dS 8. dU 9. UU
- 3년 모델 : 1. EEE 2. oEE 3. oE 4. oM 5. oS 6. dEE 7. dE 8. dM 9. dS
10. dU 11. dUU 12. UUU
- 4년 모델 : 1. EEEE 2. oEEE 3. oEE 4. oE 5. oM 6. oS 7. dEEE 8. dEE
9. dE 10. dM 11. dS 12. dU 13. dUU 14. dUUU 15. UUUU
- 5년 모델 : 1. EEEEE 2. oEEEE 3. oEEE 4. oEE 5. oE 6. oM 7. oS 8. dEEEE
9. dEEE 10. dEE 11. dE 12. dM 13. dS 14. dU 15. dUU 16. dUUU
17. dUUUU 18. UUUUU

2) 생애사건연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을 참조할 것

〈표 7〉 다양한 연쇄가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로짓분석: 여자

변수	2년 모델 로짓계수(S.E.)	3년 모델 로짓계수(S.E.)	4년 모델 로짓계수(S.E.)	5년 모델 로짓계수(S.E.)
t-1까지의 연쇄				
1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2	-0.8168(.2089)**	-0.6268(.1845)**	-0.3397(.1606)*	-0.1097(.1607)
3	0.0825(.0718)	-0.8952(.2109)**	-0.7011(.1888)**	-0.4454(.1708)**
4	-1.8396(.1468)**	0.0449(.0763)	-0.9516(.2237)**	-0.6382(.2028)**
5	-0.6018(.1492)**	-1.7639(.1556)**	0.0503(.0821)	-0.9975(.2408)**
6	-0.0472(.4451)	-0.3796(.1368)**	-1.6723(.1639)**	0.0145(.0893)
7	-1.8756(.8810)*	-0.7186(.1535)**	-0.3276(.1395)*	-1.6365(.1933)**
8	-0.1404(.1126)	0.0679(.2451)	-0.4371(.1393)**	-0.4936(.1592)**
9	0.0948(.0489)+	-1.9358(.6015)**	-0.8039(.1578)**	-0.4067(.1451)**
10		-0.2084(.1158)+	-0.0743(.1989)	-0.5163(.1461)**
11		-0.1400(.1250)	-1.9925(.5267)**	-0.8034(.1659)**
12		0.0727(.0532)	-0.1398(.1236)	-0.1056(.2184)
13			-0.2085(.1297)	-1.4918(.4171)**
14			-0.3781(.1441)**	-0.1657(.1330)
15			0.0752(.0586)	-0.1275(.1499)
16				-0.4395(.1519)**
17				0.0825(.1324)
18				0.0515(.0666)
-2 Log L (자유도)	2892.476 (23)	2255.325 (26)	1643.565 (28)	1164.646 (31)
전체 개인-연도 사건 수	24062.49	20169.86	16576.65	13288.55
	2870.700	2726.000	2555.380	2308.760

** p < .01 * p < .05 + p < .1

주: 1) 모델별 생애사건연쇄는 다음과 같다.

- 2년 모델 : 1. EE 2. oE 3. oM 4. oS 5. dE 6. dH 7. dS 8. dU 9. UU
 - 3년 모델 : 1. EEE 2. oEE 3. oE 4. oH 5. oS 6. dEE 7. dE 8. dH 9. dS
10. dU 11. dUU 12. UUU
 - 4년 모델 : 1. EEEE 2. oEEE 3. oEE 4. oE 5. oH 6. oS 7. dEEE 8. dEE
9. dE 10. dM 11. dS 12. dU 13. dUU 14. dUUU 15. UUUU
 - 5년 모델 : 1. EEEEE 2. oEEEE 3. oEEE 4. oEE 5. oE 6. oH 7. oS 8. dEEEE
9. dEEE 10. dEE 11. dE 12. dH 13. dS 14. dU 15. dUU 16. dUUU
17. dUUUU 18. UUUUU
- 2) 생애사건연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을 참조할 것

결혼시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또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비정상적 생애과정의 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5.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인구학 연구에서 생애과정관점의 중요성과 생애사건연쇄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결혼시기에 생애과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처음에 설정한 연구가설들이 대체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결혼이전의 생애과정은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러나 결혼시기에 생애과정이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상당히 먼 과거의 생애과정도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과거의 생애과정만이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애과정이 미치는 영향은 생애과정이 정상적이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이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을 경험한 사람의 결혼이 정상적인 생애과정의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을 경험한 사람이 정상적인 생애과정을 경험한 사람보다 오히려 결혼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그렇지만 정상적/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은 그 하위 생애과정들이 모두 동질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남자나 여자 모두 정상적/비정상적 생애과정 내에서 이질적인 효과를 가지며, 특히 여자의 경우 취업의 기간에 따라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생애사건연쇄를 분석할 때 압축연쇄대신 기간을 고려한 생애사건연쇄를 이용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학연구에서 생애과정의 관점이 유의할 뿐만 아니라 생애사건의 연쇄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생애과정연구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과거 생애과정이 현재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 등이 외국의 인구학연구에서는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학 연구에서는 미개척 연구분야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단지 생애과정관점과 생애사건연쇄분석의 의의있다는 점만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구학 및 생애과정연구에서 도출되어 온 이론과 가설을 새롭게 조망해보고 더 정밀하게 가다듬고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

는 연구가 한국의 사례를 가지고 현상이 어떠한가를 분석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동일한 분야의 이론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려면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구에 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인구학연구에서도 생애과정관점 및 생애사건연쇄분석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더하여 그동안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생애과정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병관(1999), "기회구조, 사회이동, 그리고 개인적 성취: 구조와 행위의 동적 전개" 김일철 편. 《한국의 사회구조와 지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방하남(1996),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전이과정의 동태적 분석", 《한국사회학》 제 30집. 봄호.
- 은기수(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회지》 제18권 제1호.
- 이재열(1996),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제19권 제1호.
- 장지연(1997), "출산을 전후한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 《한국인구학》 제20권 제2호.
- Crimmins, Eileen M.(1993), "Demography: The Past 30 Years, the Present, and the Future" *Demography*, Vol. 30, No. 4.
- Eun, Ki-Soo(1994), "Transition to Adulthood in Korea"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Pennsylvania.
- (1997), "The Sequence of Family Formation Events and the Timing of First Birth in Korea" in *Population Process and Dynamics* edited by Doo-Sub Kim and Barbara A. Anderson. Hanyang University Press.
- Hogan, Dennis(1981), *Transition and Social Change: The Early Lives of American Men*. New York: Academic Press.
- McLanahan, Sara S. and Aage Sorenson(1985),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ver the Life Course" In *Life Course Dynamics*. edited by Glen H. Elder, Jr. Ithaca: Cornell University.
- Rindfuss, Ronald(1991), "The Young Adult Years: Diversity, Structural Change and Fertility" *Demography* Vol. 28, No. 4.

Does Life Course Matter in Determining the Timing of Marriage? A Sequence Analysis of Life Events

Ki-Soo Eun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life course on the timing of marriage by a sequence analysis of life events. Data used in this study come from a life history data in the 1983 National Migration Survey. This study sets the following hypotheses: 1) Life course before marriage matters in determining the timing of marriage. 2) Recent life course matters in the transition to marriage. 3)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mpact on the timing of marriage between orderly and disorderly sequences of life events. 4) The impacts of sequences are heterogeneous within orderly and disorderly sequences. The working hypotheses are all supported by this study very well.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at sequence analysis is very significant in the study of the transition to marriage.

Key words: life course perspective, life course studies, sequence analysis, life events, timing of marriage, orderly life course, disorderly life course, norm

부록 <표 6>과 <표 7>의 생애사건연쇄에 관한 설명

1. <표 6>과 <표 7>에 제시된 생애사건연쇄는 취업중인 기간과 실업기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2. 영어 소문자 o는 정상적인 생애과정을 의미하고, d는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을 의미한다.
3. EE는 시점 t-1부터 거슬러 올라가 2년동안 연속 취업중임을 의미하고, EEE는 시점 t-1부터 거슬러 올라가 3년동안 연속 취업중임을 의미하며, EEEE는 시점 t-1부터 거슬러 올라가 4년동안 연속 취업중임을 의미하고, EEEEE는 시점 t-1부터 거슬러 올라가 5년동안 연속 취업중임을 의미한다.
4. UU는 시점 t-1부터 거슬러 올라가 2년동안 연속 취업중임을 의미하고, UUU는 시점 t-1부터 거슬러 올라가 3년동안 연속 취업중임을 의미하며, UUUU는 시점 t-1부터 거슬러 올라가 4년동안 연속 취업중임을 의미하고, UUUUU는 시점 t-1부터 거슬러 올라가 5년동안 연속 취업중임을 의미한다.
5. oEE는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생애과정이며 동시에 마지막 일년이 취업이었음을 뜻하고, oEE는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생애과정인데 동시에 마지막 2년이 취업중이었음을 뜻한다. 나머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했다.
6. dEE는 전체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이지만 마지막 일년동안은 취업중이었음을 뜻하고, dEE는 전체적으로는 비정상적이지만 마지막 2년동안은 취업중이었음을 뜻한다. 나머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했다.
7. M, S, H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해의 경제활동상태가 각각 해당하는 경제활동상태이면 정상적/비정상적인 생애과정으로만 나누어 분류하였다.